『영어영문학연구』 제44권 제3호
(2018) 가을 25－44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http://dx.doi.org/10.21559/aellk.2018.44.3.002

권력과 언어의 공모: 데이빗 매밋의 『올리나』 읽기*

김 정 호
(전북대학교)

Kim, Jeongho. "Conspiracy of Power and Language: Reading David Mamet's *Oleann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3 (2018): 25-44. David Mamet investigates human relationship in the tripartite position of power, knowledge and language in *Oleanna*. He shows the impossibility of true human relationship in the contemporary society by checking how language intervenes in the practice of power and knowledge. Mamet presents the minimal theatre in terms of character, stage property, setting, and theatrical through-line with every intention to let the audience meet the actions on stage directly without the mediation of theatrical decoration and devices. He reveals how the substantial power is supported and subverted by the manipulative power of language in *Oleanna*. He insists that language is the central substance in drama in terms that the playwright presents every informa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dramatic world effectively and substantially through linguistic discourse. He even argues that language is an action in his drama. That is why further discussions over the role and function of language in Mamet's plays are still importa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David Mamet, power and knowledge, knowledge and language, educational hierarchy, minimal theatre

I. 서 론

『올리나』(*Oleanna*, 1992)는 원래 「권력 놀이」("A Power Play")라는 부제가 있었고 매밋(David Mamet)이 직접 "이 극은 성희롱이 아니라 . . . 권력에 관한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비극"(Craig Stewart Walker 150)이라고 언급했듯이 권력의 폭력과 흉계를 집요하게 헤집는 연극이다. 애초 『올리나』는 작품의 외피가 남자교수와 여자 대학생 사이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선정적 사건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기심을 지폈던 연극이다. 또한 이 연극은 공연 바로 1년 전 연방대법관 지명자 토머스(Clarence Thomas) 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오클라호마 대학교(The University of Oklahoma) 로스쿨 교수 애니타 힐(Anita Hill) 성추행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는 세간의 평가 때문에 관심이 증폭된 연극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도 극의 소재가 소위 "미투"나 "갑질"이라는 화두에 걸쳐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시사적이며 유의미한 분석 대상일 수 있는 연극이다.

사건의 외피만을 고려한다면 『올리나』는 극중 사건의 배경이 공정함과 합리성이 담보된 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학이라는 점, 그리고 등장인물 역시 교수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변두리 인물 군상들을 등장시킨 매밋의 이전 작품들과 사뭇 다르다. 그러나 사건의 외피를 들춰보면 그의 극작품들을 관류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공허한 인간관계 양태들을 헤집고 있다는 점에서 매밋의 다른 연극들과 맞물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권력 행사에 언어가 얼마나 간섭하는가에 대한 매밋의 천착을 엿볼 수 있는 연극이다.

매밋 극을 떠받치는 두 개의 축은 간결한 무대와 구어체 언어다. 매밋 극의 대부분의 무대는 특별한 무대장치가 동원되지 않는 단조로운 공간이며 폐쇄된 공간이다. 자동차 안, 술 집, 아파트 안과 밖, 중고품 가게 등 대도시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매밋 극의 구어체 언어의 특징으로는 주로 단음절의 단어들로 구축된 짧은 문장, 은어와 욕설이 혼합된 대사들, 인물들의 파편적 감성을 드러내는 무뚝뚝하고 거친 대사 교환 및 잦은 멈춤과 침묵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생략과 반복, 유창함과 더듬거림, 세련된 어휘와 외설적 표현의 혼재 등도 매밋 극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유의 말놀이다. 매밋 극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언어 구사 기법은 살아오면서 그가 습득한 자산이었다. 변호사이자 언어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매밋의 언어 습득과 구사 습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졸업 후 배우 및 무대 감독으로 활동했고, 공장 노동자, 전화 판매원, 선원, 대학 강사 등 그의 다양한 경력은 그에게 다양

한 계층의 담화 구조에 관심을 두게 했다. 다양한 계층의 담화구조는 그의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리나』의 무대 위에서 전개되는 사건은 강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여대생이 남자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런 상황이 남자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다툼으로 번지는 상황이 전부다. 그러나 성추행이라는 상황은 극의 소재일 뿐이며 사건의 핵심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 어떤 권력관계가 개입되며 그 권력관계가 어떻게 전복되는지, 그리고 언어가 그 권력관계에 가담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집요하게 추적하는 극이다. 특히 대학이라는 학문 세계를 배경으로 전개됨으로써 언어가 지닌 힘이 매밋의 다른 작품에서보다 눈에 띄는 연극이다.

대학 사회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의 강의와 연구 활동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문가 집단은 특정한 용어 및 담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한다. 이런 집단들은 그들만의 특정한 의사소통 구조라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애초부터 지니고 있다. 문제는 대학 공간이 교수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수들의 연구 실적은 비록 특정한 담화구조를 통해 구축되지만 그 결과는 대학 밖 세상과 공유되어야 하며, 교수의 강의 역시 피교육자인 학생들과 소통과 공감이 가담해야 하는 행위다.

『올리나』는 강의중 소통과 공감을 공유하지 못한 교수와 학생이 교수 연구실이라는 또 다른 대학 공간에서 다툼과 갈등에 얽혀드는 상황을 보여준다. 연구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두 명의 등장인물들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는 오해, 갈등, 파국으로 이어지며, 언어가 사건 진행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관객들은 가르치는 교수의 언어와 배우는 학생의 언어가 어떻게 충돌하고 전복되는지를 목격하면서 이 극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요소가 언어라는 점을 실감한다. 바로 이 점에서 매밋 극의 정수인 언어의 기능과 활약이 잘 드러나는 극이다. 특히 언어와 권력의 함수관계 측면에서 그렇다.

Ⅱ. 권력과 지식

『올리나』의 극 구성은 소박하다. 사건이 진행되는 무대 위 장소는 교수연구실이며, 등장인물은 남자 교수 존(John)과 여대생 캐럴(Carol) 단 두 명이다. 1막이 시작되면 존은 연구실에서 캐럴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다. 막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은 전화로 외부 인물과 통화하고 있으며, 캐럴은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지에 대해 상의하고 해결 방안을 얻으려는 기회를 줄곧 엿보고 있다. 전화 통화가 끝나면 캐럴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꺼내지만 존은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주 중단된다.

교수인 존과 학생인 캐럴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는 맥락에서 통상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대사는 존이 주도하며, 캐럴은 한 두 마디 말을 꺼내다가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한다. 캐럴은 어렵게 말을 꺼내도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해 당황하거나, 심지어 필요할 때 적절히 반박하지도 못한다. 존은 학생의 의견에 무관심하거나 일방적 지시를 하며 교수로서 위세를 드러내는 반면, 캐럴은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며 더듬거리는 등 1막 내내 시종 일관 피해의식을 드러낸다. 1막은 정당한 요구도 매끈한 대답도 하지 못하는 캐럴의 처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녀는 존의 연구실을 방문하기 전보다 연구실을 방문한 후 더욱 혼란에 빠지며 존에게서 만족스러운 답변이나 해결방안을 얻지 못한다.

2막에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전복된다. 정황 상 1막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전개되는 2막에서 관객들은 1막에서의 존의 말과 행동이 문제의 소지가 되었다는 것을 짐작한다. 캐럴이 존의 말과 행동을 문제 삼아 존이 그녀를 성추행했다고 교수정년보장 심사위원회에 고발했던 것이다. 존은 캐럴이 오해했다고 설득하지만 캐럴은 존이 원래부터 나쁜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1막에서 현란한 말솜씨를 구사했던 존은 2막에서는 변명과 부탁을 반복하며 캐럴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들을 두서없이 늘어놓는다. 반면 캐럴의 대사는 그 분량이 현저히 증가하며 말의 무게감이 상승한다. 캐럴은 논리정연하고 단호한 어조로 의사를 표현하며 존의 행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추궁한다. 소위 갑과 을의 힘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3막의 상황 전개는 한층 긴박하다. 존은 캐럴이 자신을 음해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호출했고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시도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존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간파한 캐럴은 존에게 새로운 제안을 한다. 그가 쓴 책을 학교 도서목록에서 삭제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막에서 존의 말에 대해 분개했던 캐럴은 이제 존의 글까지 지워내려고 한다. 존은 그녀가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데 격분하며, 심지어 그녀가 자신을 강간미수죄로 고발한 사실까지 알게 된다. 결국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범죄자로 몰리게 된 존은 캐럴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권력구조로서 가르치고 습득하는 관계를 분석한 푸코(Michell Foucault)의 논의는『올리나』의 존과 캐럴의 처지를 비추는 데 적절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 푸코는「주체와 권력」("The Subject and Power")에서 권력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힘을 발휘하는 행동 모드"(428)라고 정의한다. 그는 특히 교육관계를 엄격한 권력구조의 틀로 파악한다. 푸코는 "객관적 능력" 혹은 "목표를 향해 겨냥된 행동"(426)을 교육의 권력구조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고 본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객관적 능력이나 목표 지향성 등은 학생의 신분과 태도, 혹은 행위의 유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 푸코는 또한 "권력-지식-즐거움이라는 삼각 축은 담론, 욕망, 그리고 권력의 고리와 연결되며 . . .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의 저항을 부추긴다"(Bartkowski 44 재인용)고 말한다. 그러니까 권력이란 지식을 가진 자가 담론을 통해 그 욕망을 풀어내는 즐거운 행사며, 권력에 억압당하는 자는 이에 저항하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푸코가 권력구조의 두 번째 요소로 꼽은 "통제된 의사소통"(426)은 교육현장에서 수업, 질문과 대답, 명령, 훈계, 복종 등의 약속된 기호를 통해 실행된다. 교사가 교육에 관한 제반 담론의 내용을 선택하고 진행하며 완결할 수 있는 권력을 쥔 갑의 신분이고 학생은 답변하고 수용해야 하는 을의 처지라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본질적으로 지시적이기 마련이다. 문제는 푸코의 지적대로 강압에 의해서건 혹은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건 모든 권력관계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어차피 권력 전개 과정의 주체가 아니며, 교사 역시 교내·외 상위 권력 계층에 대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애초

부터 불안정한 권력자일 뿐이다. 매밋은 존의 지식이 캐럴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교수로서 존이 확보하고 있는 지식이 대단히 허약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짚어준다. 실제로 존은 대학에서 여전히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불안정한 신분이며, 대학 밖의 일상사에서도 서투르고 답답한 인물이며 일정 부분 부적응자다. 이러한 존의 처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권력구조는 본래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다. 또한 권력이 발을 딛고 서있는 토대는 강압적 구조, 이분법적 논리, 이기적인 이익 추구, 피지배집단과는 의사소통하고 싶지 않은 고집 등과 같은 지배집단 특유의 속성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불안정성과 배타성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력구조는 화해나 공존을 허용할 수 있는 속성을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다. 치열한 다툼과 억압이 압도하는 생태계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매밋은 대학이라는 교육 공간 역시 위계질서에 의한 권력이 발휘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위베르 레이블레(Pascale Hubert-Leibler)는 매밋의 『미국 들소』(*American Buffalo*), 『다람쥐들』(*Squirrels*), 『극장 안의 인생』(*A Life in the Theatre*), 『시카고에서 벌어진 성 집착 사건』(*Sexual Perversity in Chicago*)들을 교사와 학생 간의 "지배와 분노"(557)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녀는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지식을 갖춘 경험자들의 행동 양태가 "질문하고, 평가하고 처벌하는 특권을 행사"(558)한다는 점에서 교사로 설정하며, 미숙한 자들은 "경험자들의 탐문에 복종하며 결정을 수용"(558)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생으로 설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베르 레이블레는 매밋 극에서 나이 든 경험자들을 교사로 어리고 미숙한 자들을 학생으로 분류한다. 그녀는 교사와 학생 간에 진행되는 전문적 담론은 "자발적이고 상호적인"(559) 맥락 내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매밋 극의 등장인물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근거를 교사의 지배와 학생의 저항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한다. 그녀는 전문 지식을 지닌 교사의 지시라도 특히 학생의 자발적이고 자동적인 수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육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고 짚어준다. 위베르 레이블레의 시각은 실제 교수와 학생의 갈등을 극화한 『올리나』의 경우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 학생이 교수의 지시나 충고를 의심하고 반박

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존과 캐럴은 교육의 효과가 작동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매밋은 극 초반에 등장인물의 배치를 통해 존과 캐럴이 이미 권력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 관객들은 이미 설정된 권력구조가 사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변질되며 전복되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학생은 상의하려 방문했지만 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려 든다. 교수와 학생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지만 자신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특히 학생을 눈앞에 앉혀 두고 전화기를 통해 아내와 사적인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교수의 태도는 학생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라이언(Steven Ryan)의 표현을 빌자면 교수와 학생은 애초부터 "대화할 수 없는 소통불능의 상태"(399)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극이 진행되면서 관객들은 존과 캐럴이 일정 부분 흠결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공적으로 존은 교수지만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불안정한 신분이며, 사적으로는 가장이면서도 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처지가 말해주듯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는 자신이 속한 직장 및 제도에 대해서도 다분히 냉소적이고 이중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학생 신분인 캐럴은 교수인 존과의 관계에서 확연한 약자며, 더욱이 여학생이라는 점에서 남자교수에 대해 일정 부분 경계심을 안고 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행위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저 교수의 강의와 말을 해석하는 것뿐이다. 분명한 것은 캐럴이 남자 교수인 존의 말을 여성이자 학생의 처지에서 해석함으로써 강압적이자 성적인 함의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존은 대학 교육이나 교수직에 대해 다분히 감성적이고 자유주의적 견해를 지니면서도 동시에 그 직이 담보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발휘하려는 행태를 보여준다. 존은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시험이 "더럽고 치사한 놀이" 혹은 "무의미하며 쓰레기 같은 짓이고 장난거리"(Mamet, *Oleanna* 1103. 이후 쪽 수만 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며, 대학 강의를 "혼내기"나 "제의화된 괴롭히기"(1103) 정도로 치부하며,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유용한 것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1103)이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캐럴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3막에서는 "내 이름이 연구실 문에 붙어 있고 강의는 내가 하는 거야"(1115)라는 식으로 교수

의 신분을 내세우기도 한다. 갑의 위세가 말투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분명한 점은 존의 이런 식의 담론이 지식을 통해 획득한 교수의 권력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2막에서 캐럴이 존을 “교수님”으로 또박 또박 호칭하며 “무한 권력을 원하고 있죠. 원하는 걸 시행하고 말할 권력 말이죠. 당신을 즐겁게 해주니까. 테스트하기, 질문하기, 희롱하기”(1113)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다.

극 속에서 드러나는 존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추려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 둘째, 자기 자신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다. 실제로 존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감정적인 성격이어서 교육 과정을 착취로 간주하거나 교육 정책 수립에 관계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드러낸다. 또한 학생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자로서 학생의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그는 일정 부분 교수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이 부족하며 교육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자기 확신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가장 큰 실패인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원인으로서 성추행 고발 사건이 한 축을 차지한다면 교육자로서 그가 지닌 한계 역시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객들은 연극『올리나』가 시종 일관 교수 연구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극의 극적인 효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미장센까지 배제한 연구실 공간이라는 단순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그 공간이 담보하는 교수의 권력을 절감하도록 한다. 또한 책상이나 의자, 전화기 같은 간단한 소도구들만 배치된 공간은 관객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은 채 오롯이 등장인물의 갈등과 이에 얽힌 상황에만 집중하도록 요구한다. 관객들은 건조하고 단순한 배경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사소한 행동과 말에 집중하게 되며, 그 행동과 말이 담아내는 두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를 주목하며 따라가게 된다.

매밋은 3막 극인『올리나』의 각 막의 공연 시간을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다. 매밋은 1막에 전체 공연 시간의 거의 반을 할애하며 2막과 3막은 1막에 비해 현저히 짧게 제시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관객들은 2막부터 무대 위 상황이 대단히 긴박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두 사람의 다툼에 급격히 빨려 들어간다.『올리나』의 관객들은 애매한 사건이 격렬한 언쟁과 폭력으로 번지는 상황을

면밀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치밀한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대사 및 생략된 사건은 관객들을 끈덕지게 괴롭힌다. 1막의 다소 지루하고 산만한 대사들을 주의 깊게 따라잡지 못한다면 관객들은 2막부터 빠르게 진행되는 극의 흐름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관객들은 특정한 사건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2막과 3막의 상황을 받쳐주는 근거를 산만한 대화가 난무했던 1막에서 찾아내야 한다. 빅스비(C. W. E. Bigsby)가 "연극적 최소주의"(44)라고 규정하며, 맥더못(James Dishon McDermott)이 "압축된 최소한의 문체"(180)라고 평가했듯이 "분명히 진술된 것은 없으며, 동작 역시 완결되지 않고 주제가 직접 제시되지 않는"(181) 매밋의 글쓰기 스타일을 비집고 관객은 상상력을 동원해 생략된 대사와 사건들을 건져 올려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배후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권력의 행사에 언어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Ⅲ. 권력과 언어

이글튼(Terry Eagleton)은 담화 능력이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면서 "담론은 권력이다"(203)라고 언급한다. 그는 대화를 하는 두 사람 사이에 걸려 있는 권력의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203) 처지 혹은 능력에 의해 확인된다고 말한다. "권력을 쥔 사람이 편안하게 말한다"(203)는 맥락 속에는 언어가 권력의 위세를 드러내는 징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글튼의 의도는 와틀리 (Rodney Whatley)의 언어와 정체성에 관한 언급을 묶어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와틀리는 특정인의 "정체성이란 그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35)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담론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권력을 쥔 사람이며, 그의 정체성은 바로 그가 사용하는 담론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와틀리는 매밋의 연극에서는 "언어가 등장인물을 창조한다"(35)고 말하고 있다.

매밋은 『올리나』에서 언어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

지를 보여준다. 담론을 지배하는 자는 상호 관계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반면, 그렇지 못한 자는 수동적이며 지배당하는 자다. 이 극에서 존과 캐럴의 권력 관계는 두 사람의 담론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이 극의 1막에서 캐럴은 존의 담화에 끼어들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며, 존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면담을 이끌어가고 화제를 선점한다. 존은 교수 특유의 전문적인 어휘 구사 능력을 발휘하며 학생인 캐럴을 지배한다.

1막에서 캐럴의 대사는 교수에 대한 학생의 위상을 잘 드러낸다. 학생인 캐럴은 처음부터 거의 전적으로 교수의 의견이 옳고, 교수는 학생에 대해 어떤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예컨대 "제가 아무 것도 아니고 멍청하고 배움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권리가 있죠," "제 면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1098) 등이다. 물론 교수 존은 자신도 캐럴처럼 흠결이 많은 사람이며 교육 제도의 희생자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 존은 캐럴에게 자신이 호의를 베풀고 있으니 별 다른 이의 제기나 불만 없이 연구실에서 나가주기를 원한다. 심지어 대화 도중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캐럴과의 대화를 자주 중단하는 행위는 그가 캐럴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캐럴은 연구실을 찾아 온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분명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둘러말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드러낸다. "교재가 저에겐 어려워요 . . . 저는 많은 언어를 . . . 못해요 . . . 문제가 많아요 . . . 사회적으로 다른 배경 출신이라서 . . ."(1098), "많은 민중들이 학교에 와요"(109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캐럴은 더듬거리거나 특정 어휘를 힘주어서 발음할 정도로 긴장한다. 특이한 점은 그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교재가 어려운 건 '언어'가 아니라 '단어'나 '용어' 때문이며, 학교에 다니는 사람 역시 '민중'이 아니라 '학생'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란 처지를 두고 '사회적으로 다른 배경' 운운하진 않는다. 관객들은 캐럴이 어색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적 감수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교수의 권위에 위축되어 소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생경한 어휘 선택은 그녀를 위축시키며 방문 목적 역시 매끄럽게 전달되지 않는다. 물론 캐럴의 입장에서 이런 식의 대화 진행이 완전히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캐럴은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는 탓에 단편적인 질문 외에는 애써 대화의 맥을 지탱하고 연장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주목할 점은 교수인 존과 학생인 캐럴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교수가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춰 쉽게 말할수록 학생의 오해가 심각해지며 교수는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점차 버거워한다는 것이다. 특히 존이 장황한 전화통화를 마친 뒤 캐럴이 존에게 전화통화 중 사용한 "전문 기술 용어"(term of art)가 무엇이냐고 묻자 존이 매끄럽게 설명하지 못하는 대목은 향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한다. 전문 기술 용어에 대해 존은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는 "말로 설명해야만 하는 어떤 것에 직면했을 때 . . . 어떤 용어를 말하는 것이며 . . . 이를 사용하면 누군가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 . . 나도 정확한 뜻을 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 . . 사전을 찾아보거나 설명을 듣고 나서 알았더라도 . . . 이내 무엇인지 금방 잊어버리는 것들 중의 하나"(1097)라고 더듬거리며 말한다. 그렇다면 존 역시 정확한 의미 규정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관객들은 이런 식으로 교수가 간단한 용어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교수의 지식수준에 대해 의심하게 되며, 따라서 교수가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혹을 가지게 된다.

캐럴은 존에게 강의 중 이해하지 못했던 용어들, 예컨대 "젊은이들의 실제적 보관소"(virtual warehouse of the young), "개념들"(concepts), "계율들" precepts), "유용한 것과는 다른 어떤 것"(something other than useful) (1103) 등 특정한 용어들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지만 존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존은 습관적으로 튀어 나오는 현학적 용어들을 수정하고 다시 찾아야 하며 자주 가정법 문장들을 동원한다. 그는 특정 용어를 설명하면서 캐럴의 이해도에 맞추기 위해 좀 더 쉬운 용어를 동원해 답변하지만 그 설명은 계속 미끄러진다. 학생의 어휘 구사 수준이나 이해력이 낮다는 것을 감지한 교수가 학생이 말하는 수준으로 말할 때 오히려 학생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는 상황은 지극히 역설적이다. 바로 여기에 교수 존의 난감함이 있으며, 그는 쉽게도 어렵게도 말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런가 하면 교수가 평범한 단어를 이용해 지극히 단순한 제안을 해도 학생이

다른 의미도 받아들인다면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란 전혀 가망이 없게 된다. “그 일을 해치우자”(1098)라는 존의 제안을 캐럴이 ‘성행위를 해치우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대목이 좋은 예다. 존은 자신이 전화하는 동안 기다려준 캐럴에게 미안해하며 면담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로 이 제안을 한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엿들은 캐럴은 존과 아내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고, 그가 다른 여자에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다면 존의 이 제안은 결국 여자인 자신과 성행위를 하자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존이 캐럴에게 개인 교습 형태의 만남을 몇 차례 가진다면 A 학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된다. 캐럴은 절반도 넘게 진행된 강의를 두고 점수를 고쳐 준다고 제안하는 것은 성행위를 포함한 다른 대가를 염두에 둔 불건전한 만남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정규 강의의 틀을 벗어나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는 교수의 본래 뜻을 학점을 대가로 사적인 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왜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는 캐럴에게 존이 “너를 좋아해서”(1103)라고 가볍게 응수하거나 “이곳에 너와 나 단둘이만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1103)고 하는 대목에서는 캐럴의 애매했던 심증은 확고한 신념으로 발전한다.

캐럴이 수업 중 이해하지 못했던 용어들을 되물으면서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며 오해는 사실로 굳어진다. 그녀는 수업 중에 “선호”(predilection)라는 단어를 비교적 익숙한 “편견”(prejudice)으로 바꿔 이해하려 들었으며, 지금은 “좋아하기”(liking)로 해석한다. 또한 “자극하기”(to provoke)가 “[성적으로] 미치게 하기”(to make mad)(1104)냐고 되묻는다. 주목할 점은 그녀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거듭하면서 점차 특정한 상황에 몰입하게 되고 분노한다는 사실이다. 관객들은 학생과 교수의 의사소통 과정에 적어도 세 가지 심리기제가 순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첫째, 어휘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자기 식대로 교수의 의도를 해석하고 있으며, 둘째, 교수는 학생의 이해 수준에 동조함으로써 친근감을 주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면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서 당황하고, 셋째, 학생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교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확신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발화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결과는 교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생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고 재해석되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번지게 된다. 물론 1막에서 존의 권력은 겉으로는 여전히 온전하다.

1막이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면 2막부터는 그 인식이 단순한 차이를 뛰어 넘어 왜곡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툼과 폭력이 촉발되는가를 보여준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관객들이 확연하게 목격하는 것은 존의 권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으며, 존은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질수록 본래의 언어 구사 버릇으로 회귀한다는 사실이다. 1막에서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선택하여 캐럴의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였던 존은 2막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학적인 어휘들을 동원해 장황하게 말한다.

> 존. 지금, 나는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그르치게 된 것에 개의치 않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내 자신에게 물었고 또 물어 봐, 내가 이단적 이론에 몰입하고 있는가라고, "무상으로"라고 말하진 않겠어, 난 정론이 좋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엔 관심이 없으니까 – 그러나 "내 학생들에게 손괴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
> JOHN. Now, I was not unconscious that it was given me to err the other side, and, so, I asked and ask myself if I engaged in heterodoxy, I will not say "gratuitously" for I do not care to posit orthodoxy as a given good–but, "to the detriment of, of my students." (1107)

그가 "이단적 이론" "무상" "정론" "손괴" 등과 같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어휘를 주섬주섬 동원하며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더 이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휘 앞에서 캐럴이 위축되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존은 1막에서 내비쳤던 여유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는 이미 1막과 2막 사이의 기간 동안 정년 보장 인사위원회가 보낸 보고서를 읽었으며 캐럴이 그를 위원회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장광설은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을 통해 위세와 설득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전략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에 몰린 권력이 다시 언어를 동원하여 예전의 힘을 되찾으려는 상황인 것이다.

존의 설득 공세와 현학적인 말 놀림에 대한 캐럴의 반응은 의의로 침착하다.

그녀는 이미 존에 대한 보고서를 학생회와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자신이 연구실을 방문한 이유가 호의를 베풀려고 찾아 왔으나 존의 반박과 반응을 보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캐럴이 쓴 보고서는 한 때 어눌했고 순진했던 학생 캐럴이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나 진화했고 교활해졌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막에서 존이 읽어주는 캐럴의 보고서는 "과시적이고 극적인 탈선" "성차별적이고 음탕한 방식으로 . . .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려주며" "포옹까지 진행"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위적 협착 관계를 벗어낼 것"(1108) 등과 같은 부분들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교수가 학생에게 권력관계를 이용해 집요하고 끈질긴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신랄하게 밝히고 있다. 물론 존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그 보고서가 외부 단체의 사주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캐럴 역시 "보고서를 상의해 작성"(1108)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보고서는 오롯이 자신이 썼다고 반박한다. 이미 상황은 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2막부터 전개되는 존과 캐럴의 권력관계의 역전 상황은 언어를 통해 낱낱이 드러난다. 존이 의미가 미끄러지는 어휘들을 선택하여 문제의 외곽만을 맴도는 담화를 유지한다면 캐럴은 직접적이고 단선적인 문장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놓치지 않는다. 존이 정년 보장이나 집, 혹은 아내 이야기 등 사적 관심사로 대화의 초점을 흐릴 때마다 캐럴은 "제 성적을 알고 싶은데요"(1109)라고 말하며 화제를 본래 중심으로 돌려놓는다. 또한 존이 "감사"(compliment)를 권력관계를 함의하는 "도리"(obeisance)(1110)로 바꿔 말하거나 "준거 틀"(paradigm) 같은 현학적인 어휘를 구사하며 그의 학문적 지위가 담보하는 권력을 과시하지만 캐럴은 이를 놓치지 않고 다시 질문함으로써 존에게 일상적이고 쉬운 어휘로 바꿔 말하게 만든다. 예컨대 "준거 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캐럴에게 존이 "본보기"(model)를 의미한다고 말하자 캐럴이 "그렇다면 왜 본보기라고 말하지 않았죠?"(1110)라고 곧 바로 반박하는 식이다.

교수는 어긋난 상황을 되돌리려 하지만 학생의 반격은 치밀하고 저돌적이다. 극의 후반부에서 캐럴이 존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대목은 이전에 존이 그녀에게 구사했던 현란한 말솜씨를 화려하게 재구성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캐럴. 문제는 내 느낌이 아니죠. 내 "느낌" 말고 여성들의 느낌이 문제죠. 그리고 남성들. "선출직"인 당신의 윗사람들 말이야, 아시겠어요? **증거가** 제출되는 분들, **지배해 온** 자들, 아시겠어요? 심문과 증거를 재고 **지배해 온** 자들, 아시겠어요? 당신은 **나태해.** 당신이 **유죄라는 것**, 당신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발각되겠죠, 그리고 당신은 소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겠지. 당신은 탈탈 털리겠지. 사실 때문에. 사실 때문에 말이야. "알려진 바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해줄까? **증거에 의해**. 아시겠어요? 바로 **당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의해서야**. (원문 강조)

CAROL. The issue is not what I "feel." It is not my "feeling," but the feelings of women. And men. Your superiors, who've been "polled," do you see? To whom *evidence* has been presented, who have *ruled*, do you see? Who have weighed the testimony and the evidence, and have *ruled*, do you see? That you are *negligent*. That you are *guilty*, that you are found *wanting*, and in *error*; and are not, for the reasons so-told, to be given tenure. That you are to be disciplined. For facts. For facts. Not "alleged," what is the word? But *proved*. Do you see? *By your own actions*. (1112)

짧은 문장들, 대조법을 이용해 차이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어법,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는 발성법 등 캐럴의 말솜씨나 어휘 구사력은 그녀가 더 이상 이전의 아둔하고 늦된 학생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준다. 특히 "아시겠어요?"라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존이 이해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당돌한 언변은 변화된 그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캐럴이 존에게 반복해서 던지는 "아시겠어요?"라는 강압적 질문 자체가 이미 1막에서 존이 캐럴에게 했던 질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3막에서 두 사람 사이의 권력의 균형추가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캐럴이 존의 연구실을 다시 방문한 이유가 "당신에게 지시하기 위해서"(1113)라고 말하는 대목은 갑이었던 교수에게서 을이었던 학생으로 힘이 옮겨 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막에서 시종일관 관객의 관심을 견인하는 것은 존의 만연체식 말하기와 캐럴의 단정적인 직설적 말하기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다. 존의 말하기는 솔직하지 못한 시각과 불확실한 인식, 그리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낸다. 그

의 만연체식 말하기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연상지체 현상을 보인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냉철하게 객관화시켜 바라볼 능력이 없거나 중립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없을 때, 혹은 주관적으로 경도되어 심정적 표현에 의존하게 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것은 횡설수설하는 존의 말하기가 그가 누리는 교수로서의 갑의 권력이 대단히 허약하고 표리부동하다는 것을 증거 한다는 점이다.

반면 짧은 문장 위주로 진행되면서 특정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캐럴의 말하기는 을에서 갑으로 역전된 위세를 앞세운 단호함과 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그녀가 “대학을 대표하는 도서 목록에 포함된”(1115) 존의 책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대목에서는 이전에 그녀가 존에게 “권력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니까”(1113)라고 했던 말을 떠 올리게 한다. 교수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강요하는 학생이 힘을 쥔 갑의 말투를 사용하며 그 힘을 즐긴다는 느낌을 주기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내를 애기라고 부르지 말라니까요. 내가 한 말을 들었잖아요”(116)라고 힐난하는 지경에 이르면 학생의 말투는 교수가 받아들이기엔 나가도 너무 나간 간섭이자 조롱이다.

료따르(Jean-Francois Lyotard)는 “사회적 연대 문제는 결국 언어 놀이며 탐문 놀이”(15)라고 정의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연대가 가능해야 하며, 동일한 호기심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존과 캐럴은 언어로 연대가 가능하지도 동일한 호기심이 작동하지도 않는 관계여서 그들의 사회적 연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 사이에 놓여 있는 권력관계가 본래부터 언어를 통한 연대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적 대립관계라서 그렇다. 극작가 매밋은 이들의 시각 차이를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담화 구조를 통해서 촘촘히 짚어준다.

매밋은 『올리나』를 통해 언어가 실재를 조작하고 통제하는 힘에 관객들이 주목하기를 요구한다. 매밋은 2막에서 존의 입을 빌려 언어와 권력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을 없앤다면 상처도 없앤다고 말하고 있다”(1108)라는 존의 대사는 언어가 실재에 행사하는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드러낸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의 견해를 역으로 적용해보면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만들어내면 없는 상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명제도 성립된다. 물론 이 경우 언어가 단순히 존재하는 사물만을 지칭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특정 상황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언어가 없으면 실재도 없다는 명제는 언어가 실재를 만들어 낸다는 명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언어는 있는 실재를 없애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실재하도록 조작해 내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관객들은 연극 속에서 실제 성추행 장면을 발견하지 못한다. 존이 무대 위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1막과 2막 사이 기간에도 존은 캐럴을 만난 적도 추행한 적도 없다는 것을 관객들은 2막 이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고 있다. 캐럴은 3막 마지막 장면에서 "당신은 나를 강간하려고 했어. . . . 법적으로는"(1116)이라고 말한다. 캐럴은 증언이라는 사법적 언어 행위로 조작하고 가공하여 존을 성추행자로 고발함으로써 언어 통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존은 캐럴이 이용한 법률 용어에 의해 전혀 저지르지도 않은 성추행자로 고발된다. 언어 통제력이 존에게서 캐럴로 옮겨진 것이다. 극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캐럴을 의자로 내려치려는 존의 폭력적 행동은 그가 이제는 언어를 구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언어를 통한 이해와 교감이 불가능할 때 폭력이 언어를 대체하는 것이다.

3막 끝에서 관객들은 캐럴이 마치 작가처럼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빅스비가 매밋의 연극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작가에게만 전략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에게도 기본적 전술이며, 자원이자 퇴로이고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회복책이다. . . . 환상을 다듬고, 플롯을 창조하며, 시나리오를 고안해 낸다"(22)라고 짚어 준 대목은 캐럴에게 정확히 들어맞는다. 작가에게 언어가 중요하듯 캐럴에게 언어는 없는 사실을 가공해 스토리를 꾸며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를 이용해 그녀가 조작해 낸 담론은 권력기제로 부상한다.

Ⅳ. 결론: 언어와 연극

'올리나'는 실제 1852년 노르웨이 이민자 올 불(Ole Bull)이 펜실베니아 주 포터 카운티에 120,000 에이커의 땅을 매입한 뒤 건설한 마을이다. 노르웨이 이민

자들은 이곳을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민요를 만들어 불렀으며 그곳에 가고 싶은 심정을 절절히 표현했다. 민요의 첫 연과 마지막 두 연에서 같은 대목이 반복되는데 "**사슬**을 풀고, 노르웨이 **노예시절**에 작별을 고할 거야. . . . **즐거운** 삶을 살려고 올리나로 간다네 , . .난 **선택**했네, 노르웨이 노예시절에 작별을 고했네"(필자 강조)라는 부분이다. 사슬로 묶인 노예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곳, 지배하는 갑과 지배당하는 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곳,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이상향으로 부른 노르웨이 이민자들의 심경은 매밋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매밋이 이 극의 제목을 '올리나'로 붙인 이유는 명백하다. 매밋은 대학이 그런 곳이길 원했다.

대학에서 학문 탐구, 글쓰기, 강의, 시험 등 모든 행위들은 언어를 통해 진행된다. 문제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언어가 실재를 조작하고 가공한다면, 적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번거로운 변명을 동원해야 한다면, 소통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방향만을 고집한다면, 언어를 통한 교육 활동이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언어를 통해 실재와 허상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언어의 기능 위에 구축된 대학은 결코 이상향일 수가 없다. 언어의 기능과 역할에 천착했던 매밋이 『올리나』의 배경을 대학으로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작가로서 현대 미국 사회·문화 양태를 다양하게 담아낸 연극들을 발표해 온 매밋은 미국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는다. 매밋은 『올리나』를 발표한 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2011년에 「발육 정지」("Arrested Development")라는 글을 통해 미국 대학의 인문 교육(liberal education) 실상에 대해 여전히 질책한다. 『은밀한 지식: 미국 문화 벗겨내기』(*The Secret Knowledge: On the Dismantling of American Culture*)라는 문화 비평집에서 21세기 미국 문화 전반에 걸친 의견을 묶어내고 있는 매밋은 미국 대학교육에 대해 "교육 이념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인간성 배양과는 모든 면에서 모순되는 강요, 공격, 배제 및 모욕을 통해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125)고 비판한다.

클레이버(Elizabeth Klaver)는 연극에서 언어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언어가 극작가의 허구 세계의 근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조명 받고 점검되고 다양한 각도에서 들춰지기 때문"(521)이라고 말한다. "언어의 본질적 기초는

단순히 말하기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만들어 내는 기호학적 체계"(531)라는 점을 강조한 클레이버의 입장은 언어에 대한 매밋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치웨이잔(Wei-Jan Chi) 역시 매밋의 극적 언어를 두고 "단순히 플롯이나 등장인물, 주제의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캐리어가 아니라 구조적 장치이자 주제적 초점"(45)이라고 짚어주고 있다.

연극은 언어로 진행되는 대사와 언어 이외의 기호들, 그러니까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 및 상징적 기호들이 동시에 활용되는 예술이긴 하지만 연극에서 언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며 연극의 거의 모든 주요 정보는 배우의 말을 통해 전달된다. 연극에서 언어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 심리기제까지 담아내는 중요한 요소다. 관객들은 등장인물의 언어를 통해서만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공감하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극작가에게 등장인물의 모든 양상을 담아내는 유일한 그릇은 언어일 수밖에 없다.

자의적 상징체계인 언어는 발화자인 극작가와 전달자인 배우, 그리고 수용자인 관객 모두에게 고도의 이해력을 요구하는 의사소통 도구라는 점에서 매밋의 관심을 끈다. 매밋은 언어의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절감한 극작가였다. 실제로 매밋은 그가 쓴 연극을 설명하면서 "언어가 곧 사건이다"(Bigsby 14)라고 단언할 정도로 언어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집요함을 숨기지 않는다. 매밋 극 연구에서 언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유의미한 이유다.

인 용 문 헌

Alderiso, James M. "Mamet on Mamet: Politics and Poetics in *Oleanna, Race, The Anarchist*, and *China Doll*." Thesis. The U of Missouri-Kansas City, 2016. Print.

Bigsby, C. W. E. *David Mamet*. New York: Methuen, 1984. Print.

Bartkowski, Frances. "Epistemic Drift in Foucault."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Ed. Irene Diamond & Lee Quinby. Boston: Northeastern UP, 1988. 43-60. Print.

Chi, Wei-Jan. "The Role of Language in the Plays of Mamet." *ProQuest Dissertation and Thesis*. ProQuest LLC, 1991. Print.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Minneapolis: Minnesota UP, 1983. Print.
Foucault, Michel. "The Subject and Power." *Art After Modernism*. Ed. Brian Wallis. Boston: Godine, 1984. 417-32. Print.
Hubert-Leibler, Pascale. "Dominance and Anguish: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the Plays of David Mamet." *Modern Drama* 31 (1988): 557-70. Print.
Klaver, Elizabeth. "The Play of Language in Ionesco's Play of Chairs." *Modern Drama* 32 (1989): 521-31. Print.
Lyotard, Jean-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Minnesota UP, 1984. Print.
Mamet, David. *Oleanna. American Drama: Colonial to Contemporary*. Ed. Stephen Watt and Gary A. Richardson. Fort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 1995. 1090-116. Print.
_____. *The Secret Knowledge: On the Dismantling of American Culture*. New York: Sentinel, 2011. Print.
McDermott, James D. *Literary Minimalism: Austere Style from Wittgenstein to Mamet*. Diss, The U of Virginia, 2002. Print.
Ryan, Steven. "*Oleanna*: David Mamet's Power Play." *Modern Drama* 39 (1996): 392-403. Print.
Walker, Craig Stewart. "Three Tutorial Plays: *The Lesson, The Prince of Naples* and *Oleanna*." *Modern Drama* 40 (1997): 149-62. Print.
Whatley, Rodney. *Mametspeak: David Mamet's Theory on the Power and Potential of Dramatic Language*. Diss. The Florida State U, 2011. Print.

김정호
주소: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jhk3214@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8. 06. 01 / 심사완료일: 2018. 07. 31 / 게재확정일: 2018. 08. 08